

	<b>보도자료</b>		<b>충남도당</b>
2016년 1월 11일(월)		담 당: 이영구 정책실장	
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319-37 승지빌딩 503호 / 041-569-1500, 010-2390-6824			

## “총선에서 도민 여러분의 신임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”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, 오늘 신년기자회견

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(위원장 : 나소열)이 오늘 도청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총선에서의 지지를 요청했다.

이 자리에서 나소열 위원장은 “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고달퍼진 이 중 어려운 시기에 야당이 분열하고 있어 죄송스럽다”고 말한 뒤, “당명을 바꾸는 등 새롭게 혁신하고 더욱 단단한 정당의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노력하고 있다”고 밝혔다.

계속해서 나 위원장은 “천안시와 아산시가 각각 증설되는 등의 방향으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조속히 완료되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어야 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 또한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부담을 촉구하기도 하였으며,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분권 차원에서

수도권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.

마지막으로 나 위원장은 “제대로 된 일자리와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하여,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고 한일 위안부 협상의 무효를 위하여, 한반도에서의 지속가능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정부여당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”고 말한 뒤 “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”고 강조했다.

이날 신년 기자회견에는 나소열 위원장과 함께 김종민(논산·계룡·금산), 조한기(서산·태안), 어기구(당진) 등 충남지역 총선 예비후보자 10여 명이 참석했다.

2016년 1월 11일

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